‘전남쌀’ 대한민국 입맛 사로 잡는다

‘풍광수토’ 홈쇼핑으로 지난해 42억3900만원 판매 기록
道-농협전남본부, 전국 소비자 대상 대대적 마케팅 진행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남에도 그동안 입소문을 타지 못했던 전남 쌀이 대대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전국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에 따르면 전남농협은 최근 전남도와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남쌀 판매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우선 지난 21일부터 1주일간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는 옥천농협의 ‘해남쌀이야기’ 고객감사 행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에서 판매되는 ‘해남쌀이야기’는 전남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인 ‘조명1호’ 단일품종으로, 10㎏짜리 6만포가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판매 이후 옥천농협의 쌀 ‘해남쌀이야기’ 브랜드와 전남에서 개발한 품종이 함께 매칭돼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의 경우 올해 첫 방송이 진행된 지난 21일 9시 45분부터 10시 40분까지 55분간 10㎏짜리 쌀 3440포 판매를 달성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500만원 상당이다.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풍광수토의 공영홈쇼핑 방송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홈쇼핑 판매를 진행해 2268포(10㎏), 5900만원을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방송 전 전남농협은 공영홈쇼핑, 농협홈쇼핑팀과 미팅을 통해 지난 2년간 ‘풍광수토’ 활동내역을 설명하고 전국의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홈쇼핑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풍광수토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과 4월 2일, 4월 5일에 연이어 방송할 예정으로, 이후 판매를 지켜보며 매달 1회 이상 공영홈쇼핑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방송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홈쇼핑 판매로 인한 전남쌀의 전국 확산의 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남농협은 공영홈쇼핑과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으로 총 42억390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수도권과 경상권 판매비율이 50%를 훌쩍 넘기면서 전남 쌀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지난 22~23일 전남농협은 경상권 쌀 판매 마케팅활동을 펼쳤다. 오는 4월 30일 개장을 앞둔 농협하나로마트 양산점에는 개장당일 풍광수토를 입점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산과 양산의 농·축협 하나로마트 4곳에도 신규 입점을 합의한 상태다.

최근에는 제주도 현지 유통업체인 제주도할인마트협동조합에 10㎏짜리 풍광수토 1만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제주도 현지에도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김석기 본부장은 “풍광수토 판매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 제주도, 경상권 쌀 판매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올해 전남RPC와 함께 고품질과 단일품종 중심으로 쌀 판매 활동을 펼쳐 전남쌀이 전국 소비자들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4.86 (-42.09)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3)
↓ 코스닥	727.21 (-16.76)	↑ 환율 (USD)	1134.20 (+4.10)

오비맥주 광주공장, 물의 날 ‘물 사랑’ 캠페인

광주천 정화 활동 등

오비맥주(대표 고동우) 광주공장은 최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물 사랑’ 캠페인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오비맥주 광주공장 직원들은 당일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광주환경공단,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주천 일대를 돌며 하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하천 오물제거, 밑바닥 청소, 쓰레기 줍기 등 수질 개선 작업으로 광주천 가꾸기에 힘을 모았다.

또 공장 용수 절감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사용 현장에 부착하고 용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우수작을 시상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핵심 원료로 물을 사용하는 기업으로서 용수 절감 등 실질적인 물 절약 방안과 물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물 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광주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올해 새로운 사회공헌브랜드인 ‘OB좋은세상’을 선포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미래 물 지킴이 수호천사’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LPG車 사볼까”

오늘부터 일반인 구매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LPG차량 이용이 가능했다. 이들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로 묶여있던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이용하다가 세대를 분리하면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사용 제한을 위반,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KIA타이거즈 V12 가즈아~” 광주은행 우승 기원 상품 출시

예·적금 판매…양현종 1호 가입
성적 따라 우대금리혜택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5일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적금은 올해 KIA타이거즈의 V12를 기원하는 상품으로, 구단의 경기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기본금리 연 1.9%에 성적에 따라 최대 0.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4%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KIA타이거즈 정규리그 20승 투수 배출 시 0.1%p ▲포스트시즌 진출 시 0.2%p ▲한국시리즈 우승 시 0.2%p 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기본금리 연 1.8%에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대 0.5%p)를 제공하는 한편, KIA타이거즈의 ‘연승·홈런·팀세이브’ 기록에 따라 최대 0.8%p의 추가우대금리 이벤트를 실시해 최대 1.3%p를 더한 최고 연 3.1%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해당 예·적금’ 판매와 함께 V12 기원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적금에 가입한 뒤 KJ카드로 챔피언스필드 홈경기 입장권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2명(당첨자가 지정한 동반 1인 포함, 총 4명)에게 2020시즌 대비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관 기회를 제공, 2등 50명에게는 광주은행 로고가 새겨진 KIA타이거즈 수비 야구모자를 추첨 후 증정 할 계획이다. 예·적금 가입 고객 중 문자마케팅 동의 고객 선착순 2만명에게는 KIA타이거즈샵 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백의성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KIA타이거즈의 V12를 기원하는 야구팬들에게 응원의 즐거움과 우대금리 혜택까지 제공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경제·사회·체육·문화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오전에 열린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정기 예·적금 가입 행사에 양현종 선수가 1호 정기예금 가입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 양현종 선수는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고, 이번 프로야구 시즌이 지역민과 야구팬들에게 서로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현대·기아차 협력사 호남권 채용박람회

28일 광주 DJ센터

현대·기아차 협력사 호남권 채용박람회가 오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호남권 채용박람회에는 30개사가 참여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사인 현대모비스·현대로템·현대위아·현대트랜시스와 지역 협력사인 호원·광일기업·대우전자부품·한국알프스·현성오토텍 등이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광일기공·기광산업·성진글로벌·코비코테크·한국알프스·무등기업 등 10개 업체에서는 경력직원도 채용한다.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의 협력사라는 인지도를 활용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대차그룹도 중소협력사가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재들은 중소기업이지만 경영과 고용이 안정적인 현대차그룹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에서는 ▲명사의 강의가 진행되는 ‘취업특강관’ ▲자동차 VR체험관 ▲이력서 무료 증명사진 촬영 ▲컬러이미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부대 행사관을 운영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광주형일자리 진전에 따라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들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이번 채용박람회는 현대·기아차가 보장하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박람회장을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s://hmgjobfair.career.co.kr)를 운영하면서 현장 예비면접 사전예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8년 협력사와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조6728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1차 협력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2772억원으로 동반성장 활동이 본격화된 2001년 733억원 대비 17년 만에 3.8배가 증가하는 등 연평균 8.1%의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